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CAPEX) 저조요인 분석

김 주 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기반연구팀 책임연구원(juskim@etri.re.kr)

An Analysis of the Reason Why Common Carriers Don't Increase CAPEX

Juseong Kim

요 약

최근 들어 통신산업의 전반적인 위축추세에 의해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CAPEX), 특히 유선통신부문에서의 투자가 크게 축소되어 왔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추세가 단기적이지 않고 구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발생요인도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요인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의 주요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본 다음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가 저조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통신 정책당국 및 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사점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I. 서론

최근 들어 통신산업의 전반적인 위축추세에 의해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CAPEX) 특히 유선통신부문에서의 투자가 크게 축소되어 왔다. 통신사업자의 구매물량 특히 절대구매금액의 축소는 장비산업 그중에서도 규모가 영세한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 결과 기술력에 의존한 많은 벤처기업들이 도산되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과 같이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크게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기기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부진 현황을 분석하고 그 부진이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세계 통신분야 설비투자 현황 및 전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세계 통신분야 CAPEX는 2002년에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 2008년까지도 원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수준을 먼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 세계 통신분야 CAPEX 규모

(단위 : U.S. 백만불)

지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아시아	41,598	33,216	31,471	31,116	31,402	32,168	32,036	30,122
유럽	50,830	40,665	40,797	47,509	49,981	50,844	51,097	51,861
일본	23,837	18,615	19,158	20,789	20,397	19,940	19,711	19,679
남미	12,845	6,181	6,091	8,270	7,545	7,484	7,773	8,022
북미	117,989	67,135	52,850	54,297	55,465	56,015	55,564	55,241
합계	247,090	165,812	150,367	161,981	164,790	166,450	166,181	164,924

자료 : Morgan Stanley, Morgan Stanley Global Communicator: Wireline Networking Equipment, March, 2004

II. 국내외 주요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현황 및 전망

미국 주요 통신사업자의 CAPEX는 2001년에